

미 증시, PCE 물가 안정 속 대형 기술주 쓸림 현상 지속되며 상승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물가 안정 속 대형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미 증시는 PCE 가격 지수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실적 호전 등이 유입된 반도체 및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 물론, 장중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으나, 이러한 대형 기술주에 대한 쓸림 현상이 재 부각되며 상승세는 유지. 한편, 일본 BOJ가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YCC 정책 일부 수정했다는 점은 전일 미 증시에 선반영이 되었다는 점에서 영향이 제한된 가운데 반발 매수 심리 또한 높은 모습. 결국 미 증시는 물가 안정, 실적 호전 등을 기반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 특히 나스닥의 강세폭이 컸음(다우 +0.50%, 나스닥 +1.90%, S&P500 +0.99%, 러셀2000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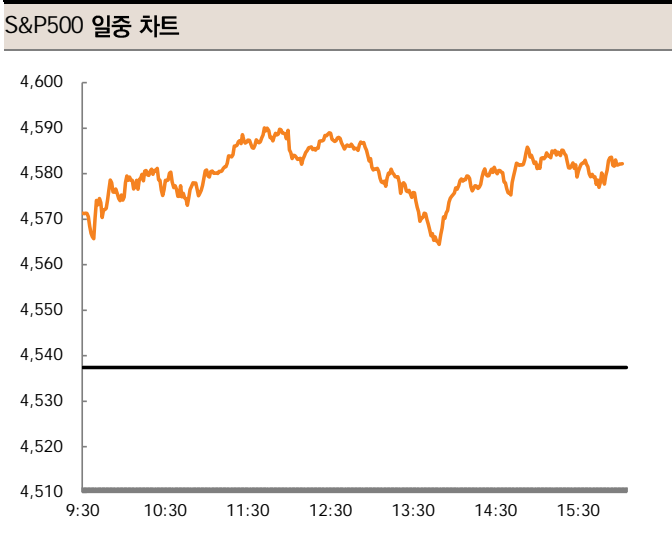
특징 종목: 포드, GM 하락 Vs. 테슬라, 중국 전기차 상승

•포드(-3.42%)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 했음에도 하락. 전기차 부문 확대가 높은 비용으로 인해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시장 참여자들의 실망 매물이 출회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GM(-2.36%)도 최근 관련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두 종목 모두 부진. 그러나 테슬라(+4.20%), 리비안(+3.42%), 루시드(+8.42%) 등 전기차 관련주는 강세. 니오(+11.33%)는 네덜란드에서의 입지 확대 기대로, 샤오펑(+15.68%)은 폭스바겐과의 파트너십 발표 후 반등을 확대하는 모습 등 중국 전기차 업종도 강세.

한국 증시 전망: 중국 경제지표와 2차 전지 쓸림 현상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1.76%, MSCI 신흥 지수 ETF는 2.4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73.26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6%. KOSPI는 0.5% 내외 상승 출발 예상.

•미 증시가 물가 안정 속 경기에 대한 자신감까지 유입되며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물론 인텔 실적 발표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2.22% 상승, 포드의 부진에 따른 전기차 관련 업종의 강세 등이 반도체 및 2차 전지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지난 금요일 일부 선 반영이 된 점을 감안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 더 나아가 장중 발표되는 중국 제조업, 서비스업 PMI 결과도 주목. 결과에 따라 중국 증시 변화 가능성이 높고, 이 결과가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상승 출발이 예상되나 이후 중국 경제지표 및 2차 전지 업종 쓸림 현상 여부에 따라 변동성 확대 전망.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608.32 +0.17	상해종합	3,275.93 +1.84
KOSDAQ	913.74 +3.39	홍콩항생	19,916.56 +1.41
DOW	35,459.29 +0.50	베트남	1,207.67 +0.86
NASDAQ	14,316.66 +1.90	유로스톡스 50	4,466.50 +0.43
S&P 500	4,582.23 +0.99	영국	7,694.27 +0.02
캐나다	20,519.37 +0.66	독일	16,469.75 +0.39
일본	32,759.23 -0.40	프랑스	7,476.47 +0.15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 개인 소득 지출, PCE 가격지수

미국 6월 개인 소득은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5%를 하회한 0.3% 증가에 그쳤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임금이 0.5%에서 0.6% 상승한 가운데 배당 소득(+0.2% → -1.2%) 중심으로 자산 소득이 0.5% 증가에서 0.2% 감소로 발표된 데 따른 것. 즉 전체적인 소득은 감소했으나 이는 배당 소득 감소라는 일회성 이슈에 따른 것으로 여전히 임금의 증가세가 지난 1월 이후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개인 소비지출은 지난달 발표된 0.2%를 상회한 0.5% 증가로 발표. 이는 내구재가 0.1% 감소에서 1.4% 증가로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지난달 발표된 수치가 은행 리스크 등으로 0.1% 감소된데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고 볼 수 있음. 서비스 부문의 지출은 0.4% 증가를 유지.

한편, 6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3.8%에서 3.0%로 낮아져 예상과 부합. 내구재가 0.4%, 비내구재가 0.8% 하락한 가운데 서비스 부문이 5.3%에서 4.9%로 하락하는 등 대부분 품목이 둔화.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로는 4.6%보다 낮은 4.1%를 기록해 물가 하락 압력이 뚜렷한 모습

결국 이날 발표된 지표를 보면 임금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는 증가세가 뚜렷하지는 않는 모습. 그러나 내구재 등이 전년 대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등 물가 하락 압력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관련 지표 발표에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의 강세가 뚜렷한 모습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포드 하락 Vs. 테슬라 상승

포드(-3.42%)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 했음에도 하락. 전기차 부문 확대가 높은 비용으로 인해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시장 참여자들의 실망 매물이 출회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GM(-2.36%)도 최근 관련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두 종목 모두 부진. 그러나 테슬라(+4.20%), 리비안(+3.42%), 루시드(+8.42%) 등 전기차 관련주는 강세. 니오(+11.33%)는 네덜란드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에 샤오핑(+15.68%)은 폭스바겐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발표 후 반등을 확대하는 모습 등 중국 전기차 업종도 강세.

퀀텀 스케이프(+23.90%)는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일 음극충전 단위셀 출하 등 긍정적인 소식을 내놓으며 급등한 데 이어 이날도 매수세가 집중되며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 인텔(+6.60%)은 양호한 실적과 PC 산업 확대 기대 등을 반영하며 상승. KLA(+5.94%)도 양호한 실적 발표에 기대 상승. AMAT(+3.96%), 램 리서치(+2.75%)도 동반 상승. 퀄컴(+2.88%), 엔비디아(+1.85%), AMD(+1.67%)도 상승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2% 상승.

알파벳(+2.42%), 메타(+4.42%), MS(+2.31%), 애플(+1.35%)등 대형 기술주는 물가 하방 압력이 높아진 데 힘입어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상승.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P&G(+2.83%)가 상승한 가운데 로쿠(+31.41%)도 예상보다 적은 손실 등을 발표하자 급등. 엑손 모빌(-1.20%), 엔페이즈 에너지(-7.48%) 등은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여파로 하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01	대형 가치주 ETF (IVE)	+0.80
클린테크 ETF (CTEC)	+1.17	중형 가치주 ETF (IWS)	+0.65
소매업체 ETF (XLY)	+1.70	소형 가치주 ETF (IWN)	+1.28
온라인소매 ETF (EBIZ)	+4.01	대형 성장주 ETF (VUG)	+1.56
미국 인프라 ETF (PAVE)	+0.66	중형 성장주 ETF (IWP)	+1.07
핀테크 ETF (FINX)	+1.60	소형 성장주 ETF (IWO)	+1.36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4.11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38
클라우드 ETF (CLOU)	+2.31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2.40
사이버보안 ETF (BUG)	+1.05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1.38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2.57	미국 국채 ETF (IEF)	+0.33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2.51	하이일드 ETF (JNK)	+0.58
바이오섹터 ETF (IBB)	+1.52	신흥국 채권 ETF (EMBD)	+0.89
로봇&AI ETF (BOTZ)	+0.35	물가연동채 ETF (TIP)	+0.38
반도체 ETF (SMH)	+1.93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OD)	+0.66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커뮤니케이션	230.71	+2.30	+6.85	+6.77
경기소비재	1,354.99	+1.85	+1.21	+1.84
IT	3,163.09	+1.48	+1.27	+2.50
필수소비재	797.98	+0.99	+0.72	+2.46
소재	536.71	+0.69	+1.81	+2.83
산업재	931.88	+0.62	+0.56	+2.62
헬스케어	1,574.35	+0.29	-0.85	+1.66
금융	584.90	+0.14	-0.24	+4.24
에너지	655.86	+0.09	+1.68	+5.18
부동산	237.81	-0.26	-1.80	+0.48
유틸리티	340.51	-0.26	-2.10	+2.32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중국 경제지표와 2차 전지 쏠림 현상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1.76%, MSCI 신흥 지수 ETF는 2.4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73.26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6%. KOSPI는 0.5% 내외 상승 출발 예상.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 부진 여파로 하락 출발했으며, BOJ의 YCC 정책 변화 소식에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음. 그렇지만, 최근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냈던 2차 전지 업종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이자 상승 전환에 성공. 여기에 미국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등이 유입되며 2차 전지 이외의 종목군도 강세를 보인 점도 특징. 이에 힘입어 KOSPI는 0.17% 상승했으며 특히 KOSDAQ은 2차 전지 업종의 급등에 힘입어 3.39% 상승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물가 안정 속 경기에 대한 자신감까지 유입되며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물론 인텔 실적 발표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2.22% 상승, 포드의 부진에 따른 전기차 관련 업종의 강세 등이 반도체 및 2차 전지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지난 금요일 일부 선 반영이 된 점을 감안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

더 나아가 미 증시가 PCE 가격 지수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를 이유로 대형 기술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재차 부각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지난 주 한국 증시 특히 KOSDAQ의 경우는 2차 전지 업종의 변동성 확대가 특징이었기 때문. 이러한 변동성은 FOMO 현상에 따른 과도한 상승과 숏 스퀴즈 등 수급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인데 이런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한편,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은 중국 경기 부양정책, 미국 경기 자신감 그리고 물가 안정 등에 힘입은 결과인데 장중 발표되는 중국 제조업, 서비스업 PMI 결과도 주목. 결과에 따라 중국 증시 변화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결과가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상승 출발이 예상되나 이후 중국 경제지표 및 2차 전지 업종 쏠림 현상 여부에 따라 변동성 확대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소비 지출 증가

미국 6월 개인 소득은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5% 증가나 예상했던 0.4%를 하회한 0.3% 증가에 그쳤으나, 개인 소비지출은 지난달 발표된 0.2%나 예상했던 0.4%를 상회한 0.5% 증가로 발표.

미국 6월 PCE 가격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0.1%를 상회한 0.2% 상승해 예상과 부합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3.8%에서 3.0%로 낮아져 예상과 부합. 근원 PCE 가격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0.3%를 하회한 0.2%를 기록해 예상과 부합. 전년 대비로는 4.6%보다 낮은 4.1%를 기록



유럽 천연가스 급락 Vs. 국제유가 상승

국제유가는 수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하기도 했으나, 달러 약세 및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 전환에 성공. 더 나아가 주요 산유국의 자발적인 감산으로 하반기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점도 상승 요인. 미국 천연가스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상승에 성공했으나, 유럽 천연가스는 풍부한 가스 재고와 폭염이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에어컨 수요 둔화 등을 기반으로 9% 넘게 급락.

달러화는 PCE 가격 지수 둔화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엔화는 YCC 정책 수정을 발표했으나, 우려했던 밴드 확대가 아니라는 점과 전일 관련 우려로 강세를 보여와 되돌림이 유입되며 달러 대비 큰 폭 약세.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0.3% 약세를 보인 가운데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등은 약세를 브라질 헤알 등은 강세를 보이는 등 상품 및 신흥국 환율은 혼조 양상.

국채금리는 근원 PCE 가격지수가 4.1%를 기록해 2021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 하락. 다만,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안에 포함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3%에서 3.4%로 상향 조정되는 등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점은 부담을 주며 하락폭은 제한. 한편,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0.5% 밴드를 상회한 0.56%를 기록하는 등 YCC 정책의 유연성을 반영하며 상승 확대

금은 인플레 완화 기대 속 달러 약세와 금리 하락에 힘입어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심리로 상승. 곡물은 입찰 수요 둔화 및 주요 작황지에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소식에 하락.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90% 하락, 철근은 0.68%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0.58	+0.61	+4.55	Dollar Index	101.622	-0.15	+0.55
브렌트유	84.99	+0.89	+4.84	EUR/USD	1.1016	+0.34	-0.97
천연가스	2.64	+1.66	-2.76	USD/JPY	141.16	+1.20	-0.40
금	1,999.90	+0.74	-0.27	GBP/USD	1.2851	+0.43	-0.02
은	24.50	+0.53	-1.45	USD/CHF	0.8698	+0.08	+0.46
알루미늄	2,222.00	+0.77	+0.79	AUD/USD	0.6650	-0.88	-1.17
전기동	8,662.50	+1.09	+2.49	USD/CAD	1.3237	+0.10	+0.10
아연	2,497.50	+1.77	+5.29	USD/RUB	91.8665	+1.30	+1.32
옥수수	530.25	-2.21	-1.12	USD/BRL	4.7322	-0.24	-1.05
밀	704.25	-1.19	+0.97	USD/CNH	7.1526	-0.25	-0.49
대두	1,382.50	-1.11	-1.37	USD/KRW	1,277.00	-0.05	-0.50
커피	157.90	-2.20	-2.44	USD/KRW NDF1M	1,273.26	-0.69	-1.03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951	-4.75	+11.58	스페인	3.515	+3.50	+3.70
한국	3.731	+9.40	+9.60	포르투갈	3.214	+4.30	+3.90
일본	0.568	+11.80	+11.80	그리스	3.827	+4.80	+2.70
독일	2.492	+1.80	+2.30	이탈리아	4.114	+4.30	+3.6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